

CEO 동정

제114회 철도의 날 기념식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철도산업 종사자 700여 명과 함께 9월 16일 대전 철도타워에서 열린 제114회 철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추석맞이 불우이웃 나눔활동



김광재 이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2일 대전 삼성동 풋살경기장에서 열린 독거노인, 노숙자 등을 위한 마을 잔치에 점심식사 등을 제공했으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전역 무료진료소와 노인 시설 등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펼쳤다.

새누리당 임금체불 예방 현장방문 회의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추석을 앞둔 9월 10일 공항철도 수색연결선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 등과 함께 현장회의에 참석했다.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 협약식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9월 5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안홍수 경기철도주식회사 사장과 함께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 협약식'을 가졌다.

호남고속철도 전기자재 제작공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9월 4일 호남고속철도 등 철도 전기분야 자재를 제작하는 대우볼트 및 디투엔지니어링 공장을 방문하여 각종 현안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2회 대한민국 지식大賞 우수상 수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공단은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인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과 민간기업의 지식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대상 '지식행정대상'과 매일경제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식혁신대상'으로 나누어 시행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의 지식경영 시상식이다. 공단은 김광재 이사장의 혁신적인 지식 리더십,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지식혁신활동, 소통과 참여의 직원 주도적 열린 경영 등의 내부 활동과 협력사와 함께하는 신기술·신공법 교류 등 정부3.0 시대 정보교류 활성화를 선도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년 약 500개 업체의 계약심사 기간을 1.5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한 '계약심사프로그램 자체 개발', 신안산선 복선전철 설계 VE를 시행하여 역사 환기구 위치를 외부에서 내부로 변경하는 등 1578억원을 절감한 'VE활성화로 설계 최적

화',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 바이크 및 도유류부지에 오토 캠핑장 조성 등 '철도 자산 활용 수익 창출', 철도건설 중 발생되는 수목 등 임목폐기물을 지역주민에게 퇴비로 제공한 '임목폐기물 재활용', 하도급 대금 지급 알림 문자서비스 및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개선', 사례와 학습CoP(KR 배움두레) 운영을 통한 다양한 지식혁신 성과 창출 시책 등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지식경영을 통한 임직원의 지식 공유, 소통과 참여의 열린 경영,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추진해온 지식혁신 활동이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로 국민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대금 3559억원 추석명절 전 지급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추석명절을 맞아 건설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약 3559억원의 공사대금을 집행하여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와 장비 및 자재업체들에게까지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했다. 본부는 대금지급의 지연을 예방하고 장애요인을 적시에 조치하여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9일부터 9일만에 걸쳐 헬프데스크, 전자조달, 예산, 회계, 건설사업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로 특별지원반을 구성·운영했다. 한편, 본부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기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건설협력업체의 임금체불, 장비임대료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등이 없도록 지난 4일부터 3일간 전국 30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적기지급을 유도했으며, 특히 추석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와 주의를 기울였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변화·혁신 노력과 상생협력 성과를 담아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예산절감을 통한 적기 철도건설, 건설산업 최고수준의 재해율 달성 등 변화·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9월 3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설규모 최적화, 시공방법 개선, 설계VE, 공단 직원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직접설계와 감독 등 창조혁신을 통해 최근 2년간 1조560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철도 건설과정에서 거품을 빼 '저비용 고품질 철도건설'을 실현한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전동시장, 와이퍼 등 국유재산의 고객 맞춤형 수익모델 창출과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국 23개 사업 해외진출로 최근 2년간 1849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11년 415억원, '12년 929억원 등 1344억원의 순부채를 상환했다. 이런 노력으로 '무디스'가 평가한 해외신용등급이 국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국가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3(안정적)으로 2차례 상승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용수요와 국가정책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비 집행으로 경춘선 및 전라선의 고속화사업과 광역철도 5개 사업, 일반철도 7개 사업 등 최근 2년간 14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한 것은 물론이며, 시공 중 현

장중심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취약개소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10년 35건(재해율 0.128)에서 '12년 15건(재해율 0.082)으로 57% 감소했다. (국내 건설산업 평균 재해율 0.74%) 아울러 '온라인 구매·입찰 상담 창구'를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인증제품(NEP), 우수 물품 조달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였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등으로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등 상생·협력의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은 CEO의 '2012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2012 바른 기업인 대상' 수상과 '2012 VE경진대회 최우수상',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로도 인정받았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용자 중심의 철도만 건설로 국가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설계지침 연계교통시설편' 전면 개정

- 철도역에서 버스·택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이동 편의성 계획 등을 담은 철도설계지침 연계교통시설편을 이달 중으로 개정·시행한다. 그동안 철도역은 지자체의 요구나 지역민원으로 도시 외곽에 건설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버스, 택시 등 연계교통수단이 부족하고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철도역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확정하여 개통과 동시에 이용객의 편의제공이 가능토록 하였고 승강장에서 연계교통시설까지 환승거리를 120~180m(이동시간 2~3분)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철도역 이용객 수요에 맞는 안내표지판 및 키오스크(Kiosk)* 등의 연계교통정보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는 지침 개정으로 이용객의 편의가 향상돼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연계교통시설 설치로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키오스크(Kiosk) : 이용객에게 환승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시스템
* 철도역 도시외곽 건설 사례(갈호 안은 도심지와 철도역의 이격거리)
: 울산역(21km), 공주역(13km), 신경주역(12km), 김천구미역(10km), 진주역(5km)

* 주 교통수단과 접근교통수단(버스·택시 등)의 평균 환승거리 비교(단위 : m)

구분 (주 교통수단)	고속·일반철도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평균 환승거리	358	290	298	228